

第112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6月27日(水) 11時24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議事日程

1. 2001年度建設交通局所管水防對策業務에 대한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2001年度建設交通局所管水防對策業務에 대한報告의件 1面

(11時24分 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吳鍾錫 建設交通局長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개의되는 회의에서는 집행부 민생현안 문제인 수방대책에 대해 보고받게 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12회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전국이 장마권에 접어들어 수해로 인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주변국가의 수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는 말로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해로 인한 재난을 미리 대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1세기를 여는 시점에서 참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렵게 출발했던 기억이 엇그제인데 위원님 한분 한분 모두가 열심히 헌신 봉사하시어 종로구의 도심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노력해왔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온 결과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숙된 의회상을 구축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와 같은 저력으로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에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지

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도 현명하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혜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主任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001년 종로구 수방대책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金景良 議事擔當主任! 수고하셨습니다.

1. 2001年度 建設交通局所管 水防對策業務에 대한 報告의 件

(11時27分)

○委員長 金福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수방대책업무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나오셔서 수방대책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녕하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입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및 배려와 유사시 현장에서 직접 재해 예방을 위한 솔선수범으로 수년동안 재해 없는 모범구로 건설되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수방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지구온난화 현상 등 다발적인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재해발생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장기 기상 전망으로는 장마기간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8월에는 지역적인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수방시설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하수관로는 총 379km이며 맨홀, 빗물받이 등 하수부대시설은 총 21,1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방추진계획입니다. 수방기간은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수방조직으로는 구에서는 6개반 75명, 동 수방단은 민방위대를 주축으로 한 950명을 편성하여 단계별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편성표 및 단계별 근무상황은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개량 및 준설입니다. 하수관 신설 및 대상사업은 6월 25일 현재 8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준설은 저희 우기 전 준설 물량이 60% 목표이나 64%를 준설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현장순찰을 강화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의 수해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입니다. 각 기능별로 공사장 15개소 및 절개지, 옹벽, 축대 등 시설물 12개소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초빙 지난 6월 12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미비한 분야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로상 빗물받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재해대책기금 중 1억 8,900만원을 사용하여 수방장비인 양수기는 각 동

보관상태를 점검 미작동 6대를 기이 보수완료한 바 있고 정전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 19대를 구매하여 각동에 한대씩 추가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방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홍제천 주변에 2,500만원을 투자하여 CCTV를 설치 우기시에 홍제천의 수위를 수시 상황실에서 점검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방장재 장비 및 구호물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현재 구기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필요한 장비는 각동에 기이 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시 이재민 수용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및 교회 등 19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의 수방관련 직원교육 및 홍보입니다. 수방교육 및 훈련은 기 시행한 바 있으나 기간 중 수시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재해 없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는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므로 반회보 및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주민 홍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방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일동은 열과 성을 다하여 금년도에도 재해 없는 종로구 건설에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2001年度建設交通局所管水防對策業務에대한報告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委員長 金福同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吳錦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당주동 44-3호 보금장과 LG25시 그 사이 뒷골목 여기에 보면 어

제도 동장님하고 지역 동장님들하고 순회를 했습니다마는 통신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콘크리트를 하지 않아서 아주 보기가 싫고 중앙이 도로보다 높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20여 m 되고 그런데 물받이를 한 2개 정도 해줬으면 하고 동에서 서류상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전혀 물받이가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음은 추후에 서류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憲九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憲九委員 李憲九委員입니다. 이것도 수방대책의 일환인데 옥인동 관내에 불국사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 불국사 정내에 아카시아나무가 수십 그루 있는데 이것이 너무 자라다 보니까 이제 키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카시아나무는 뿌리가 아주 얇게 옆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태풍이 불거나 또는 비바람이 심할 때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잠깐만이요, 공원녹지과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李憲九委員 그런데 아카시아나무 옆에 전깃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전깃줄 뒤에까지 뻗었습니다. 이것이 쓰러지면 전깃줄에 걸려서 큰 재난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몽땅 잘라달라면 주민 민원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절반 정도 잘라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福同 李憲九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李炯述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종로관내에 근처에 수도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李炯述委員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교체 시키면서 도로를 파가지고 원상복구할 때에 이 도로를 포장하여 물이 맨홀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빗물받이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가운데 음쪽음쪽 파지게 포장을 해서 비가 와서 차가 지나가면 물이 사방에 튀거든. 그런 부분 어떻게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특히 중앙고등학교 앞에서 현대건설 내려가는 그 부근에 지금 수도공사를 하고 마지막 또 포장하지 않아서 차가 가다보면 굴곡이 있어 가지고 차가 빠져 가지고 옆에 가는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업자들 좀 감독을 해서 도로의 음쪽음쪽 빠져 가지고 물이 고여서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국동 전철역 북쪽으로 보면 재동약국 건너편에 여기 역시 도로공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빗물받이보다도 도로지면이 낮아요. 아주 많이 낮아요. 비가 오면 빗물받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물이 빠져나가려면 빗물받이 자체가 위가 높으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잘못됐다고 보고 이러한 것은 각별히 좀 빨리 시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계동 2-2번지 골목, 원서동 4 골목 이러한 골목에 집을 짓고 나면 자기 대지를 일부 경계선에 띄우지 않습니까? 도로에 3m50도 되고 3m70도 되고 그 정도면 자가용차가 간신히 들어갑니다. 그런 도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일단 집을 짓고 나면 소유는 자기 대지더라도 도로에 나와있는 거는 주민들을 위한 편익이 되어야 할 텐데 건설교통국에서는 위에서 지시를 했는지 이 부분을 자기 띄워놓은 50cm에다 경계석을 세우고 그 안에 보도블록을 깔면 차도 못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보도블록을 전부 평면까지 집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차가 드나들 수 있도록 편하게 행정을 해줘야지 집을 지은 주민에게 양해가 되면 보도블록을 평면으로 깔 수 있겠다 이러한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적으로 이제는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전체

가 일면이 돼서 차량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편익을 이웃의 편익을 도모해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李炯述委員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축후퇴선 때문에 소유권은 사유지로 되어 건축소유자와 일단 저희들이 협의 노력해서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의 형태가 일관성이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보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지도감독, 그런데 물론 땅 대지 소유주는 분명히 집주인이 맞습니다. 집을 짓고 났을 때 도로로 내놓은 부지는 다른 거 일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하게 다른 작업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국장님이 잘 좀 이해를 시켜서 이웃주민들에게 생활이 좀 편하게 유도를 해주셔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차량 들어가는 데 고통을 받는 거기에다 양쪽에 2, 30cm 이렇게 띄워 가지고 경계석 쌓고 보도블록 깔아놓으면 차량은 전혀 못 들어갑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행정이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이끌어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잘 알겠습니다.

○李炯述委員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도공사를 하고 난 뒤에 굴곡이 저서 물이 고여서 이웃에게 피해 안가는 그런 점도 지도감독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吳弼根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弼根委員 吳弼根입니다. 오늘 吳鍾錫局長께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신다고 해서 올해는 피해가 없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李憲九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대입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옷자라 가지고 빌딩을 넘었어요. 빌딩을 넘어 가지고 주민들이 절개를 해달라 하는 부탁을 많이 하

시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은 은행나무는 절개를 할 수 없다 이러한 대답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옷자라 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절개는 할 수 없다고 하시지만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아남아파트 뒤에 대보빌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작년에 덧씌우기를 했는데 한번 우리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한 것만 못해요. 전부 폐허가 되고 주민들이 이러한 공사가 어디 있느냐? 제가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1년이 안됐으니가 잘못된 것은 업체에게 재시공을 할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에 공사가 있는데 전혀 의원에게는 연락이 없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저는 꼭 시정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저희 동네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찮게 제가 없는 날을 골라서, 제가 어떻게 해서 알아서라도 가서 봅니다마는 우리 故崔康洵議員 발인날, 장지를 갔다오는 날 택해서 꼭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날 아스콘을 씌웠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분들이 “의원께서 뭘 합니까? 공사장에 와서 좀 감독도 하고 하셔야지 의원은 나와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회에 지역에 공사가 있을 때는 꼭 지역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참석하고 공사를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福同 吳弼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朴鍾植 존경하는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鍾植委員 수방대책이나 화재대책이나 재해대책은 마찬가지로인데 한 며칠 전에 우리 이화동에 화재가 났어요. 집주인은 전부 세를 주고 마석에 가서 살고 세든 할머니가 있는데 불량한 애들이 같이 세를 살기 때문에 불안하고 뭐라고 하면 유리창을 깨고 하니가 결국은 계집아이 하나하고 남자 둘하고 6명이 있다가 2명은 사전에 도망가고 사고원인이 지금 확실히 안났지만, 이놈들이 싸우

다가 일부러 기름 질러 가지고 불이 나서 두에는 죽고 한애는 떨어져서 중대에 빠져있고 한애는 치료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인데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에 할머니가 신고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집주인한테 수차레 신고를 했었고 대책이 없이 그냥 나오다가 화재가 나 가지고 사람이 죽고 불쌍한 할머니 장애인 아들하고 사는 할머니가 완전히 갈 데 올 데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은 1억 짜리 보험까지 들어 가지고 오히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집주인은 법대로 하려면 해라. 나몰라라 이려고 있으니까 어차피 죽은 애들은 저희가 잘못 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가고 올 데도 없어요. 장애인 아들하고 살고. 그래서 동사무소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무슨 부탁을 받았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를 하나 해서 이사를 보내달라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의논을 드리려고 하다가 수방대책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할머니 임대아파트 문제는 하나 해결이 되겠더라구요. 우리 국장님!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 이따 자료를 드릴 테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를 보내줘야지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완전히 다 타서 치울 사람도 없어서 치우는 문제 때문에 우리 동장님 굉장히 몸살 치고 동사무소에서 싸우고 난리나고 그랬었는데 할머니 문제는 할머니는 임대아파트를 해서 이사를 보내줘야 되겠다라고요. 우리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해주시고, 해주도록 이렇게 좀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朴鍾植委員님께서 화재 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사되어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관계과에서 임대아파트를 줄 수 없다면 재해관계로 해서 줄 수가 있는지 재해관계법규를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 검토한 후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鍾植委員 그런데 몇년 전에 동승동에서 위에 바위가 쪼개져 가지고 떨어져서 두 집이 파손되고

한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었거든요. 세든 사람하고 그 3가구는 중계동에 임대아파트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대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권을 줘서 이사를 했고 세든 사람들은 임대아파트로 보내준 사실이 있거든요. 화재나 수재나 아무 이유 없이 돌맹이가 떨어져서 사고가 났지만 해줬어요. 그래서 할머니 임대아파트 만큼은 해결이 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장애인증명서하고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朴鍾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丁炳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이렇게 수방대책을 세우신 국·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 안하더라도 충분한 대책을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각동에 빗물받이나 맨홀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홀도 청소를 다 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많이 고여있는 곳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그러한 것을 쓰레기 하나라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서라도 청소를 해야 되겠다고 또한 빗물받이가 덜컹거리고 차가 지나칠 때 움직여서 소리가 나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지역도 몇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서 바로 소리가 안나도록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신다면 금년 장마에 우리 종로구는 어떠한 재해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丁炳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수방으로 해서 보고회를 갖는데 정말 수고하시는 건설교통국의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이신 丁炳煥委員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로구청에서 수방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수방대책을 세우려면 적어도 4월이나 5월에 우기가 닥치기 전에 빗물받이나 맨홀 정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정비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용량의 어느 정도의 미터를 빗물받이나 측구나 그다음에 맨홀이 정비가 되었는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載弘委員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을 저희들이 상반기 6월 15일부터 수방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6월 15일 이전에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공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6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수방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6월 15일까지 각종 시설물 정비라든가 준설이 100%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 시설을 준설 및 보수해야 되겠습니까하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예산 사정상 100%는 불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요간선도로를 주축으로 빗물받이 준설과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과 협의해서 가능한 취로나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6월 장마 이전에 준설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준설이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 일부 안된 지역이 준설이 안된 상태로 해서 침수가 된다는지 저지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의 지대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빗물받이 상황으로 인해서 커다란 문제점은 발생, 침수상태로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면도로의 빗물받이 기타 준설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기중이라도 수시로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서 준설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준설하셨거나 한 실적이 있으면 얼마나 몇 km나 하셨는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설물량은 저희들이 6월말까지 1년계획의 60%를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실적은 64% 진도로 계획 물량보다는 많은 준설량을 보였고 그 자세한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한 유인물에 총괄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지금 4쪽에 있습니다. 4쪽 하단 부위에 하수관 신설개량은 80% 진도로 지금 말씀하신 빗물받이 포함해서 준설 물량은 1,660루베로 잡고 있는데 우기 전 물량이 계획이 60%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64% 해서 1,062루베를 준설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종로지역이 상당히 특수지역이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하천이 소위 오픈된 곳 그것은 제한적인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집중호우가 내릴 때 준설이 제대로 안됐을 때는 도로에서 물이 떨어져서 도로에서 흡수가 돼서 관로를 따라서 들어가지 않으면 도로 자체가 우수로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 지역 세검정지역이 보면 관로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관로를 따라 그것이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도로로 흘러요. 도로로 흐르다보니까 침수피해가 '98년도, '99년도 계속해서 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준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적어도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상습 침수지역이나 상습 피해지역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98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피해를 봤어요. '99년도에 똑같이 동일한 장소가 피해를 본다면 이 소위 수방대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수방대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원회에 보고하기 전에 준설한 물량이나 이러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99년도, '98년도에 피해가 났는데 금년도에도 역시 종로구 세검정 일대 지역은 아무것도 준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 또다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호우가 내렸

을 때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방대책이라는 것은 국장이 현장 가서 보고 작년도 피해가 난 곳이 어디 있는가 금년도에 대책은 있는가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종로구 평창동이라든가 신영동에 적어도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복구는 되어 있는지 또 다시 피해가 재발할 우려는 없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현장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세검8교 공사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의회에 오기 전에 들러서 봤더니 그걸 지금 세검8교를 짓기 위해서 재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상에 토사가 적어도 하상 바닥부터 1m50 높이로 있다가 오늘 아침에 그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국장님하고.

○土木課長 李宗哲 예, 알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왜 그렇게 늦어요? 만약에 2, 3개월 전에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그 토사는 유실됐을 거 아닙니까? 개천바닥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수방대책 보고회를 갖는 오늘 아침에야 비로소 그 하상의 토사를 준설하고 있더라구요. 8교를 개설하기 위해서 부려놓은 토사를 지금 걷어올리고 있다고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콘크리트를 치려고 당초 설계대로 거푸집을 대놨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부터 설계할 때부터 점점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술자문위원이나 모든 검토를 했었습니다. 두 번이나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지역여건상 부득이 아마 작년 설계대로 했는데 해놓고 현장 나가서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다소 조정할 것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일부는 구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 양해는 못 구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콘크리트를 칠 거푸집까지 다 대놨던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

로 철거를 해라 했는데 제대로 치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현장 갔다 오다 보니까 안 치웠길래 다시 이것 모든 것을 방치해서 되겠느냐 다시 치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오늘 수방대책 관계보고회의가 있어 가지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쪽으로 나왔던 일이 있어서 제가 지시했던 대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차 지시해서 오늘 작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安載弘委員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것도 그래요. 세검8교 공사가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특별시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방 추진사항 보고를 보면 소위 우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 6월 15일에서 여기 보니까 10월까지 잡았는데 6월에서 7월초순까지 잡아놨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겁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남부지방에 머물던 장마전선이 서울지역까지 올라왔다면 그 물은, 토사는, 그 거푸집은 다 떠내려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개울이라는 것은 산악지역에서 비가 내려서 집중호우가 내리면 물의 흐름이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힌 유수의 막힘이 있을 때는 물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다시 피해를 볼 수도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여지껏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여러 번 담당계에 담당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 치워야 되지 않느냐, 대책이 무엇이냐,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방치해둬요. 이것이 종로구의 수방대책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특히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천이 흐르고 있는 종로구 세검정 일대를 한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신 적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돌아봤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러세요? 구기동 가시면 이것 못 보셨나 모르겠어요. 구기동 153-6번지 뒤에 가면 산쪽에 있는 나무가 개천쪽으로 해서 나무가 6m 이상 되는 나무가 자빠져 있습니다.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예.

○安載弘委員 그것이 왜 자빠졌느냐 하면 그 건너편이 녹지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워낙 길다 보니까 한그루가 자빠져 있어요. 자빠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국장이나 과장이나 또는 담당계장이 수방대책보고회를 갖기 전에 현장 한번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무가 자빠져 있어요. 만약에 집중호우가 내렸다고 지금이라도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것이 소위 유수의 흐름을 또 막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시고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토목 과장님! 과장이나 계장 선에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데 구기동 산76번지 빗물받이를 설치하기로, 그거 뭐죠? 침사지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여기는 '98년도, '99년도 계속 집중 때 엄청난 토사가 유실되어 가지고 도로까지 나왔던 지역인데 아직까지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동 234번지는 담당계장이 현장확인 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 417번지 그 다음에 평창동 6-14번지, 361번지 토지형질변경지역도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들이 사전에 수방대책을 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전에 적어도 담당 과나 담당직원이 위험지역으로 이렇게 여기 보고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적어도 한번씩은 돌아보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5쪽에 수해취약시설 점검 및 특별관리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장 15개소 해서 토목공사장 4군데, 토지형질변경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해취약시설이. 종로구 평창동처럼 수해위험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비가 오면 그냥 토사가 유실되고 매년 그러는데 평창동, 세검정 일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98~'99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민원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담당 지역의 의원이 얘기를 해줬으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금년에 수방대책을 보고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위원님께서 지역의 자세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형질변경이나 각종 공사장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12일 외부 전문가와 구청의 각 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별로 지역별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금 각과에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세검정 일대에 '97, '98년도에 수해피해가 났던 것을 저희들이 일부 아까 준설을 전반적으로 수해 취약지역에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맞습니다. 이 준설이 전체 배수 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98, '99년도에 홍제천이 범람할 수 있는 물량이라는 것은 기 예고되어 있었습니다만 200년 만에 올 수 있는 빈도의 상당한 양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결과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 전반적인 하수시설물은 10년 빈도 강우량에 대비한 하수관거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빈도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는 물론 준설을 안 했을 때의 영향도 있습니다만 집중적인 강우량이 단 시간에 내리기 때문에 그 용량을 하수관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홀 위에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도로에 잠수적으로 침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검정 일대 '98, '99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홍제천 수위를 현장에 나가지 않더라도 지금 구청 상황실에서 CCTV를 금년에 설치합니다. 6월 말까지. 그래서 상황실에서 홍제천 수위가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를 바로 봐서 인근지역의 침수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조치를 하면 지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세검정 지역과 홍제 개거상태의 홍제천, 구기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해서 그 지역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바가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질문드리는 기본 취지는 이런

겁니다. '98, '99년도에 집중호우가 지금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전에 없던 그런 집중호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문제점이 발견되고 문제점이 야기된 곳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98, '99년도에 똑같은 부실이 있어서 담당과에다가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장확인도 했을 거고. 왜냐하면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설이 보완되고 그러면 CCTV 1억 얼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수순설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긴 시설을 보완하면 되지 CCTV를 상황실에 앉아서 본다고 그게 문제가 발생된 게 해결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97년 수해 이후에 그쪽의 침사지 등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다 했습니다. 물론 많은 물량이 내려와서 원류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저지대 침수지역 예방을 위해서는 모래주머니를 저희들이 사전에 비치해서 유사시에 낮은 지역에 안 넘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기타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安載弘委員 아니 근데 안 했잖아요? 내가 얘기하는데 안 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내가 왜 얘기합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홍제천은 별도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설을 못 하는 것이지

○安載弘委員 국장이 세검정지역 한바퀴 돌았는데 어디를 돌고 뭘 보신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지금 玄壽漢委員님이 안 나오셨지만 '98년도나 '99년도에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피해나 또한 방책이 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히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받아서라도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할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지요.

○安載弘委員 근데 안 했단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대책

이 뭐냐고 묻는 거지 여러분들이 했는데 내가 왜 물어봐요? 참나.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지적하고 고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까지 안 됐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건데 뭘 했다는 겁니까? 지금.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安載弘委員 구기동 산76번지 빗물받이 침사지 설치한다고 '99년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금년까지 이게 됐습니까? 됐어요? 안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피해가 발생하는데 무슨 수방대책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土木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해서

○安載弘委員 맨날 조사하면 뭐해. 맨날 조사하면. 맨날 조사만 하면 뭐하냐구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그 다음에는 고쳐줘야지 2년이 지나도 안 고쳐주고 맨날 수방대책 한다고 그러면서 예산 타령만 하고.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 안 줬어요? 2000년도에 하수 관련해서 예산 얼마 줬어요? 더 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課長!** 답변해 보세요.

○土木課長 李宗哲 수방대책에 대해서 아무리 정책을 하셔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安載弘委員 도대체 의원이 현장에서 보고 얘기를 하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예 하고 답변하고 현장 확인하고 조사했으면 일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비 오기 전에

○土木課長 李宗哲 이것도 저희들이 작업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매끄럽지 못해서 시설이 미처 다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챙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委員長 金福同 局長님! 課長님! 안위원님 말씀을 잘 챙겨서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 외에도 낙후된 지역이나 높은 고지대에도 철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흥분했는데 양해하시고 왜 건

설교통국은 지역의 의원이 지역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지 못한 사실들을 찾아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도 왜 일들을 안 하는 겁니까? 왜 안 해주는 겁니까? 이유가 뭐니까? 얘기 좀 들어봅시다. 局長! 답변해보세요. 왜 해당지역의 의원이 집행부에서 알지 못하는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로 문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은커녕 왜 시행을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답변 좀 해보세요.

○土木課長 李宗哲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安載弘委員 局長! 답변하라니까요. 課長은 가만히 계세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가 항상 질책받는 것이 뭐 하나 해준 게 있느냐?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평창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로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가능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해드린 지역이나 해드린 분야가 많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은 조금 과장이 아닌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중에 안된 부분도 있겠지요.

○安載弘委員 그럼 내가 과장해서 局長한테 답변 하라고 그런 겁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할까요? 2000년도 말부터 2000년 초까지 도로 열다섯 곳 이상을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한군데도 안 했어요. 왜냐 하면 6월달 넘어야 된다고 하고서는 6월달 넘어서 하나도 안 했어요. 무슨 월드컵인가 때문에 아스콘 공급이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우기 지나고 한다고 그러고 하나도 안 했어요. 지금 내가 지적한 이 하수관로도 담당계장한테 내가 국장한테도 얘기는 안 했지만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됐어요. 평창동에 여러분들이 뭐 했어요? 분류하수관로 공사도 땀방 공사예요. 어떻게 공사하는지 아세요? 내가, 의원이 될 국장한테 과장하게 얘기합니까? 과장돼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사실만 얘기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안 한 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土木課長 李宗哲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더 얘기할까요? 의회사무국의 엄정란씨! 협력국 통해서 내가 공문 낸 거 다 가져와.

○土木課長 李宗哲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가져오세요. 뭐 하나 된 거 있나 봅시다. 安載弘委員이 기안해서 건설교통국이나 각과에 보낸 거 다 가져오라고. 의원이 과장돼서 국장한테 얘기한다니까 아니란 걸 보여줘야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가 과장돼서 말씀하신다는 건

○安載弘委員 얘기하지 마세요. 과장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委員들이 다 듣고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 위원님이시면 말이죠 제가 안된 것은 분명히 안 됐습니다마는 해드린 것도 있지 하나도 안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安載弘委員 지금 내가 얘기한 건 여러분들한테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도 안됐기 때문에 그걸 가져오란 거예요. 그거 가져오면 그거 보고 답변하면 될 것 아니에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러니까 안위원님이 평창동 지역에 요구하신 중에 하나도 안됐다고 말씀하시니까

○安載弘委員 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안됐어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委員長 金福同 局長님! 安載弘委員님! 돈을 낮춰서 얘기하십시오. 신성한 의회장소에서 이게 됩니까? 계속 하십시오.

○安載弘委員 그러면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내가 금년초에 건설교통국에 요구한 내용 중에서 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土木課長 李宗哲 포장 덧씌우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드컵 관계로 인해서 조금 늦게 해서 각 지역별로 대충 일정을 잡아 가지고 관련된 위원님들한테 대충 언제까지는 할 수 있다는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데 이것도 차질이 생겨 가지고 그 일정에 못한 지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대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덧씩우거나 이런 하수물, 보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課長! 얘기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제 얘기는 이런 얘기에요. 의원이 구두로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계장한테 그 담당직원을 호출해서 이 지역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나오겠지요. 그것도 내가 만약에 내 일정에 맞춰서 내가 지금 시간이 한가하니까 그러면 그 직원들은 뭐라고 그러나 하면 지금 바쁘니까 언제로 잡아주십시오 그런 다구요. 그럼 좋다, 기다려요. 나오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공문화 합니다. 이걸 안되겠다, 공식적으로 문서를 내자 그래 가지고 기안을 해서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부로 보냅니다. 국장께서는 의원이면 의원이지 과장 되게 뭐 해준 게 있냐고 묻는다면 왜 해준 게 없겠느냐고 그러는데 보자니까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서 내가 건설교통국이 됐든 각과가 됐든 어느 국이 됐든 문서 낸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거 있나 한번 살펴보고 과연 의원이 담당국장에게 과장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내용 중에서 미진한 게 있다면 바로 착수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세요. 委員長님! 자료가 올 때까지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委員長 金福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실수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그 실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안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국장 입장에서 지역의 민원이 안위원님께서 서류 상으로 제출한 것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반적으로 관리한 관리차원에서 본다면 평창동지역에 그동안 상당한 민원 또한 요구사항도 있었고 제가 봐서는 해드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

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하나도 안됐다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安載弘委員 吳局長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모르는 사실이 너무 많아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제가 물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담당팀장이나 직원한테 말씀하신 사항이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돼서 세세한 사항까지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았다면 더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해드릴 수도 있었지만 제가 보고를 못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았더라도 아무튼 제 책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기간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局長이 실수를 시인하는 게 계장이나 담당계원한테 설명을 했는데 局長이 모르는 사실도 있다고 그렇게 지금 인정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렇지요. 현장을 안본

○安載弘委員 아니 좋아요. 그러면 의원이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담당계장이나 계원한테 얘기해서 그 일이 안 되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저도 책임이 있지요. 중요도에 따라서 물론 직원이 됐든 누가 됐든 이것이 국장까지 보고할 사항인지 아니면 밑에서 작업 지시를 해서 처리할 사항인지 그런 분류사항도 있을 겁니다.

○安載弘委員 그러면 모든 내용을 앞으로 민원이나 그런 걸 국장이나 청장한테 직접 얘기해야지 계원이나 계장한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지요. 그 말씀이 아니고

○安載弘委員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아니지요. 현장의 중요도에 따라서 위에까지 보고가 안된 사항을 安委員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걸 제가 모를 수도 있다는 얘지요. 현장 여건상. 그러나 중요도에 따라서 중요한 사항은 저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숙지해야 되겠고 일부 숙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모를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일의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서 담당계원이나 계장이 의원이나 기타 민원을 접수했을 때 중요한 사항이란 것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피해가 발생했고 과거에 발생했고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일 처리가 돼야할 그런 우선순위가 있다면 의원이 담당계원이 됐든 과장이 됐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구했던 또는 사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요구한 그러한 내용은 그럼 무시당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도나 '98, '99년도 침수됐던 지역의 우려사항을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물론 팀장이나 직원과 상담했을 때 현장을 조사해서 이것이 安委員님 생각하시는 그러한 중요도인지, 물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고가 안됐다면 보고하지 않은 팀장이나 직원을 제가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세세한 부분까지 저한테 보고 안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보고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지금 보면 세검정, 종로구 평창동 사무소 앞에 가면 주택은행이 있어요. 주택은행 앞에 혜원사 골짜기에서 나오는 수로가 한국일보 쪽에서 흐르는 수로가 있는데 2개수로가 만납니다. 도로 지하에서 만나는데 도시가스공사인가 하수관로보수공사인가를 하면서 자재를 그냥 쌓아놓고 갔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土木課長! 알고 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방대책을 보고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장을 돌아봤다고 하는데 그럼 국장께서 현장을 돌기 전에 사전에 담당 하수과나 토목과의 어떤 직원이라도 전년도에 위험했고 전년도에 범람한 지역은 여러분들이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99~2000년도에도 상습적으로 범람을 해서 침수가 되거나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전년도 피해가 난 지역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국장께서는 현장을 돌아봤고 '98, '99년도에 범람했을 때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했다고 했는데 그건 옳은 얘기죠. 해야지요. 그건 격려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꼭 문제가 발생해서 현장에서 감시하지는 말자 이런 말이지요.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에 체크해서 보완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기가 닳치기 전에 준설할 것은 준설을 하고 침사지 설치할 곳을 침사지를 설치하는 게 그게 수방대책이지 사후에, 범람해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것이다 이거죠.

○土木課長 李宗哲 당연하신 말씀이십니다.

○安載弘委員 잠깐 정회했다가 자료가 도착하면 무엇이 안됐는지를 제가 국장한테 얘기를 해야지요.

○土木課長 李宗哲 자료는 저희가

○安載弘委員 그럼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 받은 자료 중에서 무엇이 됐고 무엇이 안됐는지.

○土木課長 李宗哲 세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安載弘委員 局長은 해줬다고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해봐요.

○土木課長 李宗哲 국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봐서 한 사항도 있고 별도 공문으로 온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安載弘委員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핏대를 낸 적이 없습니다. 국장, 과장들한테 왜 열심히 일하는데 제가 의원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격려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그러지 제가 왜 여러분들을 힐난하고 뭐가 내가 잘났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원이 요구해서 의원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고 안 되면 이만저만한 사유로 이게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이 답변합니까? 계장이 답변합니까?

○土木課長 李宗哲 잘 알겠습니다.

○安載弘委員 제가 오늘 열을 받는 기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공문서를 10장이고 20장이고 보내면 뭐합니까? 담당 계장, 과장 전화 한 통화 없는데. 그걸 국장이 어떻게 알아요? 뭘 다해줬다는 거예요?

○委員長 金福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安載弘委員 委員長님! 이거 밝혀야 해요. 자료 가져올 때까지 정회하고 내가 공문 낸 것 중에서 뭐가 됐고 안된 것이 뭐가 있는지 그때까지 정회해주세요.

○委員長 金福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8分 會議中止)

(12時31分 繼續開議)

○委員長 金福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우선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동네주민도 아니고 동사무소 직원도 아닙니다. 의원은 그 해당지역 주변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계원이 됐든 계장이 됐든 의원이 그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또는 문제점을 가지고 소속 국·과의 직원들에게 얘기한 것은 공식적인 요청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설교통국은 어떤 전반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부분적인 부서는 그 조직이 제대로 시스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지역의 민원을 가지고 그 지역의 민원은 역시 그 지역의 의원이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낸 것이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100%가 다 안됐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열가지 중에 1개라도 될 수도 있고 두가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드리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도로포장이 됐든 하수구에 준설이 됐든 침사지에 설치가 됐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위험수목의 제거가 됐든, 도로포장의 신속한 해결이 됐든 보도블록 교체의 신속한 해결이든 이런 포괄적인 문제들이 그야말로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들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의원이 돼서 열을 낼 이유는 한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원이 지역의 민원을 수렴해서 그 이야기를 주민들 앞에서 그 담당 직원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주민과 더불어서 의원들이 그 담당 직원에게 이리이러한 문제가 있음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진척이 안 된다면 그 의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 꼭 그걸 국장한테 얘기해야 되고 과장한테 얘기해야만 그 문제가 풀린다면 그 국의 시스템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장이나 과장한테 그 얘기를 해야만 그 문제가 해소되고 민원이 해소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조직이 그런 조직입니까? 그 조직의 구성원 누구라도 의원이 얘기한 것을 수렴해서 국·과장한테 보고하고 왜냐 하면 의원이 불렀으니까 의원이 그 민원 때문에 담당직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직원이 나와서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해줬다면 국·과장도 A지역의 모의원이

이러이러한 민원을 내셨구나 하고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실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께서 아까 답변 중에 얘기를 들어보면 계원들이 중요성을 판단해서 국·과장한테 보고할 게 아니라고 하면 보고를 안할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적어도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존중한다면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제가 정말 우리 담당국장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 얘기의 기본적인 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의원이 발언하고 의원이 얘기해서 그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 누가 얘기한다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말씀

○安載弘委員 잠깐만 주세요. 내가 결론을 짓고 답변을 들겠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이 돼서 의원님들이 저를 제외한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만 어떤 특정지역이나 또는 어떤 종로지역 전반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직분이고 그 지역의 민원은 그 해당지역의 의원님들이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속속들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민원을 수렴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민원인들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원을 진정으로 존중해준다면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준다면 제가 바라는 이러한 문제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해결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吳局長!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安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내용이나 좋은 말씀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장이 알 수 있는 사항과 직원이 알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저도 밑에 직원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약간 상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여건상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의원님으로서는 지역에 중요하다 말씀하셨지만 각 기능별로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 경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위에 보고가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적은 민원부터 큰 민원까지 가급적 제 손에서 보고도 받고 전반적으로 챙겨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늦는다면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챙겨서 그러한 분야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현재까지 처리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조치를 하고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덧붙여 드릴게요. 의원들이 그 민원을 접수해서 수렴해 가지고 해당부서로 넘겨줬을 때 그 일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대로 일의 중요성이라든가 경중을 가려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의원이 낸 민원에 대해서 그 해당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고 지체가 되고 있으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까지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다면 제가 오늘 吳局長한테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한개도 없습니다.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별도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리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잘 되는 조직이라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가 안 가도 그 하부 일선조직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이 돼 가지고 일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은 거지 의원들이 매일 민원 들고 국장 방에 가서 吳局長! 이거 해주시오 이러는 걸 바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福同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委員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吳鍾錫 建設交通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委員
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
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42分 散會)

○出席委員 9人

金福同 安載弘 李憲九 吳錦南
丁炳煥 李炯述 洪承台 朴鍾植
吳弼根

○出席專門委員

蔣昭秀

○出席關係公務員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土木課長 李宗哲

